

작년엔 수도권 축제... '가을야구', 올해 반전 있을까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각...올해도 5위 안에 지방 팀 1팀 반전 노리는 6위 KIA·7위 롯데...극적 결과 만들지 주목

올해 KBO리그에서도 수도권 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위 5팀 중 지방 팀은 단 한 팀뿐이다. 지방 팀들의 반등이 없다면 올해도 수도권 팀들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올 시즌도 수도권 팀들이 지방 팀들을 압도하고 있다. 선두 LG 트윈스가 독주체제를 구축했고, SSG 랜더스가 2위에 자리 중이다. 5위 안에 포함된 나머지 3팀은 KT 위즈, NC 다이노스, 부산 베어스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5팀 중 지방 팀은 NC뿐이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는 '가을야구'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최근 한화의 하락세가 뚜렷하고, 삼성은 중위권과의 격차가 꽤 벌어져 있다.

6위 KIA 타이거즈와 7위 롯데 자이언츠의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시즌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질주 중이다.

최근 4년간 포스트시즌 진출 팀의 수도권 출

립 현상이 지속됐다. 2019년부터 4시즌 연속 5팀 중 수도권 4팀이 가을야구 초대장을 받았다. 지난 4시즌 동안 LG와 키움 히어로즈는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었고, 두산과 KT는 3차례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일궈낸 SSG는 2차례 경험했다.

반면 지방 팀은 힘을 쓰지 못했다. 2019년(5위)과 2020년 NC가 유일하게 가을야구를 누렸다. 특히 2020시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2017년 챔피언인 KIA 이후 3년 만에 지방 팀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1년 삼성이 2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고, 지난 시즌에는 KIA가 5위로 가을야구 막차 탑승에 성공했다. 롯데는 2017년에 3위를 기록한 뒤 하위권을 맴돌았고, 한화의 마지막 포스트시즌은 2018년(3위)이었다.

2017년 KIA(통합 우승), 롯데(3위), NC(4위)가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며 지방 팀들이 가을야구를 경험했다. 포스트시즌에서 지방팀이 더



많은 가장 최근 시대가 무려 6년 전이다. 반전을 꿈꾸는 KIA, 롯데, 한화, 삼성은 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팀이다. 프로야구 흥행을 바라본다면, 수도권과 지방 팀들이 고르게 상위권에 포진해야 한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7일(현지시각)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경기 1회 말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 엑스레이 검사 문제 없어”...14일 컵스전 등판 가능

갑작스러운 무릎을 맞은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다음 등판 일정을 문제 없이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은 9일(한국시간) “류현진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훨씬 나아진 상태로 다음 경기에 선발 등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원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후 14개월 만에 빅리그로 돌아온 류현진은 복귀 두 번째 등판이던 전날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에서 갑작스러운 무릎을 맞은 불운을 겪었다.

4회 2사 1루에서 오스카 곤잘레스의 시속 157km의 타구가 그대로 류현진의 오른 무릎 부근을 강타했다. 류현진은 통증을 느끼면서도 타구를 잡아 1루로 송구,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다음에야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그러나 이날 3회까지 주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않는 등 4이닝 무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패투를 벌이던 류현진은 결국 5회 마운드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위대 강타를 맞은 데다 부상을 받고 더 그아웃으로 이동해 부상 정도에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무릎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MLB닷컴은 “경기 후 무릎이 붓고, 큰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다행히 잘 회복해 더 심각한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현진이 부상 여파를 털어내고 일정대로 마운드에 오르다면 오는 14일 오전 2시37분 열리는 시카고 컵스전에 등판하게 된다. 복귀 후 3번째 등판으로 시즌 첫 승 도전 무대다.

뉴시스

순위싸움 한창인데...주축선수 부상에 '비상등'

두산 양의지 옆구리 부상으로 말소...NC 서호철·KIA 김선빈도 부상

순위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후반기, 각 팀들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승부를 걸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면 팀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11연승을 질주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렸던 두산 베어스는 그 기세를 잊지 못하고 최근 추축하고 있다. '2강'을 위협하던 3위에서도 밀려나 8일 현재 5위(48승1무44패)를 마크하고 있다.

48일 8일에는 팀의 공수 핵심인 포수 양의지가 왼 옆구리 근육 미세 손상으로 말소됐다.

양의지는 2-3주 정도 회복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의지는 올해 87경기에서 타율 0.323, 9홈런 44타점을 올리고 있던 중이다. 포수 마스크를 쓰고 투수들의 안정적인 투구도 이끌어냈다.

두산은 3위 NC 다이노스(49승1무43패), 4위 KT 위즈(50승2무44패)를 1게임 차로 쫓고 있다. 이처럼 순위표가 혼란한 상황에서 양의지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순위싸움에도 직결될 수 있다.

중위권 싸움을 이어가는 NC도 올해 부상으로 버티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선발 투수 구창모, 이재학, 최성영 등이 연이어 부상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알토란 역할을 하던 내야수 서호철마저 손가락 부상으로 지난 6일 1군에서 제외됐다. 서호철은 올 시즌 잠재력을 터뜨리며 타율 0.301, 2홈런 30타점의 성적을 냈다.

최근 뜨거운 타선을 앞세워 5강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6위 KIA 타이거즈(44승2무43패)도 김선빈 이탈로 공백이 생겼다.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342(38타수 13안타)의 고감도 타격감을 선보이던 김선빈은 햄스트링 통증으로 쉬어간다.

롯데 자이언츠는 주전 포수 유강남이 옆구리 부상으로 지난날 29일 말소된 후 9경기에서 3승6타에 그치고 있다.

부상 방편에 올고 있는 건 중위권 팀들뿐만이 아니다.

2위 SSG 랜더스는 타격왕 경쟁을 벌이던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허벅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며 비상이 걸렸다. 에레디아는 회복까지 4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올 시즌 타율 0.332, 11홈런 58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던 에레디아의 빈 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1위 LG 트윈스와 선두 경쟁을 하던 SSG는 어느새 LG와 격차가 5게임으로 벌어졌다.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중위권 싸움을 하던 키움 히어로즈는 이정후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며 힘을 잃었다. 최근 9연패 수렁에 빠져 9위(41승3무58패) 자리도 간신히 지키고 있다.

반동세를 보이던 최하위 삼성 라이온즈는 외국인 투수 알버트 수아레즈가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최소 4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다.

김효주, 메이저 AIG 위민스 오픈서 준우승 아쉬움 씻는다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프리디그립 위민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김효주가 메이저 대회 AIG 위민스 오픈(총상금 730만 달러)에서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AIG 위민스 오픈은 오는 10일(한국시간) 영국 서리의 월턴 히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다.

브리타니 오픈은 2020년부터 AIG 위민스 오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1994년 LPGA 투어 공식 대회가 됐으며, 2001년 메이저 대회로 승격됐다.

한국 선수들도 이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2001년 박세리가 첫 우승을 거머쥐었고, 2005년 장정미 챔피언에 등극했다. 신지에는 두 차례(2008·2012년) 우승했고, 박인비(2015년)와 김인경(2017년)도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김효주는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지난해 AIG 위민스 오픈에서 공동 15위에 오른 바 있고, 지난주 스코티시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6경기에 3차례나 톱5에 올랐다.

김효주는 스코티시 오픈 3, 4라운드에서 정확한 드라이브 샷과 안정된 쇼트게임 등 좋은 경기력을 자랑했다.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 선수 전인지도 정상 도전에 나선다. 이미 US 위민스 오픈, 에비앙 챔피언십, KPMG PGA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린다.

세계랭킹 2위로 떨어진 고진영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승리가 필요하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그동안의 부진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쉐린 부티에(프랑스)다.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과 스코티시 오픈을 제패한 부티에는 3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의 선수 후보로 부상한 부티에가 이번에도 우승할 경우 시즌 4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에 더 가까워진다.

특급 유망주 장현석, LA 다저스와 손잡았다...계약금 90만 달러

용마고 장현석, 다저스와 계약...미국 메이저리그 도전 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낸 용마고 장현석이 LA 다저스 품에 안겼다.

장현석의 에이전트인 리코스스포츠는 9일 “장현석이 LA 다저스와 계약금 9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현석은 “다저스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나를 선택해준 만큼 열심히 노력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고교야구 최대머로 꼽힌 장현석은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빅리그에 도전하기로 했다. 다저스와 손을 잡으면서 메이저리그라는 꿈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다저스는 국내 팬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구단이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입성했다.

한편, 장현석은 오는 14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LA 다저스 입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뉴시스



전남드래곤즈 엠블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3' 위너 선정

전남드래곤즈 리뉴얼 엠블럼(CI·BI)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3'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최하는 국제 디자인 대회로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다.

전남드래곤즈와 글로벌 브랜드 그룹 ㈜모라비안앤코(대표 김영수)가 협업하여 참가한 이번 어워드는 ▲레드닷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컨셉으로 구분되었으며, 전남드래곤즈 리브랜딩 엠블럼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위너로 선정되었다.

전남드래곤즈의 리브랜딩을 진행한 그룹 ㈜모라비안앤코 박준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전남드래곤즈는 선수단, 팬, 지역 그리고 기업이라는 네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함께 뛰는 팀이다”면서 “전남드래곤즈의 고유의 워닝 멘탈리티로 공동체임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남드래곤즈가 K리그를 넘어 국제적으로 사랑받는 축구팀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남드래곤즈 엠블럼은 굿디자인 코리아 어워드 2022 동상을 시작으로, K 디자인 어워드 2023 금상 그리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3 위너 선정까지 국내외를 넘어 국제적으로 구단의 가치와 상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K리그팀이 되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체중 사격, 전국대회에서 금 2·은 2·동 2 수확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서 메달 6개 획득



광주체육중학교 사격팀이 전국대회에서 금 메달 2개 등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중 사격부가 전북 임실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47회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대회 10m공기권총 남중부 단체전 결승에 출전한 조은준·김유환·김유준·이준혁은 1674점을 기록해 1664점의 북대중에 10점차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0m공기권총 개인전에서 출전한 이준혁은 제주중앙중 김재현을 2.5점차의 여유있는 점수로 따돌리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광주체중 김지환·송건호·박재현·한동완은 10m공기소총 남중부 단체전에 출전해 1836.4점을 기록해 남원주중(1842.2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도 김지환이 한광중 송시우에게 석패해 2위에 머물렀다.

10m공기소총 여중부에서는 이승희·정승희·라현영·김민정이 1849.1점을 얻어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정승희 학생이 단체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서선욱기자